

73개 교단 한자리,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생명의 부활, 한반도의 평화' 주제로 1만여 명 참여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생명의 부활,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73개 교단이 연합해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해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예배당을 가득 채운 1만2000여 명의 교인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예배는 대회장 이영훈 목사의 대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목사는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삶이 있는 진리"라면서 "한국교회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선포했다.

설교는 한국교회총연합(한국총) 대표회장 김경석 목사가 '부활 생

명'을 주제로 전했다. 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둠을 뚫고 진정한 빛이 임한 순간이었고 이 빛이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몰아냈고 시름을 공허히 바라보게 하는 치유의 광선으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부활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자"고 권면했다.

설교 후 이어진 특별기도는 부활과 평화, 사랑, 선금을 주제로 공동 대회장인 최형영 정기원 안상운 목사 등 상임대회장 신용현 목사가 각각 인도했다. 통성기도는 상임대회장 안성우 목사가 했다.

환영사에서 소강석 목사는 "1885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것 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부활절연합예배는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 대표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육해공군 본부교회 헌당 30주년 예배'

제55차 정기총회 개최하고, 신입이사 위촉 및 비전 2030 결연식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김삼환 목사·MEAK)가 지난 26일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육해공군 본부교회에서 '육해공군 본부교회 헌당 30주년 감사예배 및 제5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군선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군선교연합회 임원과 이사, 전국 지회, 군복 파송 10개 교단, 유관기관, 현역 장병 및 군 교역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년의 군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부 예배는 기독교군종교구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가 '신비한 복음의 진로(빌 1:12-13)'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축하 및 격려에서는 헌당 3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함께 해군군종목사단장 김광식 목사의 건축약사 보고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육해공군본부교회는 1989년 7월 육해공군본부의 계통에 이전과 함께 지어진 영내 예배당이 협소해 신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군종목사 파송 교단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1996년 4월 1만 8천 제곱

미터 대지에 예배당을 건축했다.

3부 제55차 정기총회에서는 군선교 사역 확장을 위한 주요 안건들이 다뤄졌다. 먼저 신입 이사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이강호 목사(푸른초장교회), 김동호 목사(전 학생군사학교장), 박정규 장로(신길교회)가 위촉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사뭇가꾸큰나무교회 및 대전 오메가교회와 '비전2030 결연식'을 갖고, '비전2030 1천 결연교회 및 1만 결연자 운동'을 합쳐게 선포했다. 이 밖에도 2025년 군선교사업 결과 및 회계 결산 보고, 감사보고 등이 순조롭게 처리됐다.



여의도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 개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 국회의사당서 규탄대회

최근 발의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교회가 연합해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강력히 촉구했다.

종교법인해산법 반대대책위원회(총무위원장 김은성 목사)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종교법인해산법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의 위헌성과 위험성을 제기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도들과 교단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조배숙 의원(국민의힘)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수사관이 아닌 일반 행정직원이 의심스러운 이유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교회에 출입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이

것은 실질적으로 영장 없이 강제 수사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거룩한방파제 대회장 김은성 목사(영락교회)는 이번 법안을 "특정 종교를 규제하기 위한 의도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교단 인사들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김정민 목사(금안교회)는 "종교의 사회적 발언까지 정치 개입으로 간주될 경우, 신앙의 양심에 따른 공적 목소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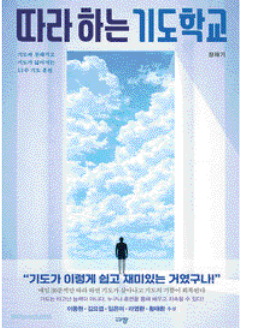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촉구한 고명진 목사(중앙침례교회)는 "정치권을 향해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시 눈을 돌려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절망된다"며 좋은 정치를 위해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신간 소개

따라 하는 기도학교

저자 장재기 목사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이들이 기도의 말문을 트도록 돕고 있는 '온라인 기도원장'이다. <따라 하는 기도> 시리즈 저서들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26편의 구독자와 독자들이 기도의 말문을 트고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으나, 이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지 못하고 자꾸만 멈춰 서는 것을 보며 저자는 기도에 개인의 골방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리도 필요함을 절감했고, 이에 여러 지역교회를 다니며 기도학교를 열어 성도들의 기도 훈련을 시작했다.

그 기도학교의 강의를 담은 이 책은 기도를 쉽게 느끼고 조금씩 지경을 넓혀가는 과정의 입문서다. 기도를 쉽게 시작하며 탄탄한 기본기를 세우고, 내 기도와 열심 대신 쉽고 간단하면서도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으로 하루 30분씩 기도 훈련을 12주, 84일간 하는 실천 교재이기도 하다. 매일 한 편씩 따라서 기도할 영상의 QR코



드와 체크리스트도 마련되어 있어 책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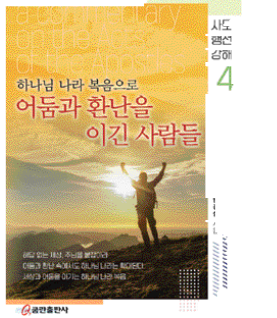
기도는 은사가 아니라 훈련이다. 타고나야 하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 어린 대화다. 소그룹을 이루어 이 책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보라. 한장 한장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곧장 달려가 뜨겁게 기도하고 싶을 것이다.

저자/장재기 출판사/규장편역 따라서 기도할 영상의 QR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어둠과 환난을 이긴 사람들

민경설 목사의 네 번째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이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주님이 자기 삶 속에 역사한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진 복음 전파를 자랑할 수 있다고 했다. 승리한 기독교인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이 환난을 이기는 삶인 것이다. 내가 약할수록 역설적으로 주님의 크고 강한 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약한 자가 승리하는 역설적 은혜의 비결이다. 이 책의 독자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한다.

민경설 목사는 한국 교회를 전도로 섬겨 부흥의 소망을 꽃피우려 그가 창도한 '전도 동력(Evangelism Dynamic Power)'의 전파를 멈추지 않는 열정적인 전도자이다.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전도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민경설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학교 교장으로 개교회 평신도를 훈련시켜 전도자로 양



성해왔다. 1984년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의 신자락에 광진교회를 개척하고, 시흥시 신도시에 지성전을 설립하여 재직 1만여 성도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별히 그는 침체되어 가는 한국 교회를 되살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나누기 위해 30년 전 미래복원연구원을 설립하고 전도동력세미나를 개최하여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저자/민경설 출판사/쿠팡출판사

성결대 영암관(김응조 박사 기념관) 건립 모금 운동에 즈음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헌신으로 발전해 온 성결대학교가 개교 65주년을 맞이하여 금번에 '영암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성결 가족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영암관'은 성결대학교 설립자요 초대 학장이셨던 영암 김응조 박사의 건학이념과 헌신을 기리며, 후학들의 신앙과 학문의 요람이 될 교회당과 교육시설을 갖춘 기념

건축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당국(총장 정희석 박사)은 69억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성결 가족도 벽돌 한 장, 의자 하나라도 협력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예성총회는 영암관 건립추진 후원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영암관 건립 후원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 가. 모금 대상 : 성결대학 가족(성결대총동문, 단과 대학별 동문, 성결신학교 신대원 동문, 재학생, 직원), 성결가족(전국교회 성도들, 해외 동문, 교회 성도들), 단체(전국 산하기관 및 교회, 기업체 등)
- 나. 모금 기간 : 2026년 4월 10일부터 영암관 준공 시까지
- 다. 모금액 : 1만 원 이상 ~ 제한 없음 (단, 100만 원 이상 기부자(기관)-기념 동판 제작 부착)
- 라.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영수증 발행해 드립니다.
- 마. 입금 계좌 : ① 총회 : 농협 301-0383-8423-41 / 예성총회
② 대학 : 기업은행 185-138338-01-489 / 성결대학교

영암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 송덕준 원로목사

부위원장: 박근주 장로 / 총무: 권순달 목사 / 서기: 황성환 목사 / 회계: 임태진 목사(정), 강규열 원로장로(부)

